

# [ 국 어 ]

해설 위원: 오 대 혁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총평: 비문학 말하기, 쓰기, 독해 중심의 문제

역대 시험에서 처음으로 국문법 문제를 전혀 출제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어문규정도 2문제였고, 비문학 12문제, 문학 3문제, 관용어와 한자 3문제가 출제되었다. 시험의 난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실수를 하지 않는 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비문학 문제를 세세하게 나눠보면, 말하기와 쓰기 4문제였고, 일치와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독해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되었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 훈련이 요구되는 문제들이었다. 문학에서 현대시 감상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난도 상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어문규범이나 한자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어렵지 않았다. 결국의 고득점의 관건은 비문학 독해 실력이었다.

- 오대혁 배상(拜上)

### 2023년도 국가직 9급 국어 영역별 출제 분포

출제 영역	문항 수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0(3)	
어문규정	2(2)	[표준어] 난도 下 [한글맞춤법] 난도 中
속담, 관용어, 한자	3(2)	[관용어] 난도 下 [한자] 난도 中 [한자성어] 난도 中
비문학	12(9)	[말하기] 난도 下 [쓰기-조건에 맞는 글쓰기] 난도 下 [퇴고] 난도 下 [문단의 순서] 난도 下 [독해-일치] 난도 中 [독해-일치] 난도 下 [독해-일치] 난도 中 [독해-일치] 난도 中 [독해-일치] 난도 中 [독해-추론] 난도 中 [독해-추론] 난도 中 [독해-빈칸 추론] 난도 中
문학	3(4)	[고전시가-사설시조] 난도 中 [현대시] 난도 上 [현대소설] 난도 中

### 2023년도 난도별 출제 비중

난도	문항 수	영역
上	1(1)	현대시 1
中	12(11)	어문규정 1, 한자 2, 비문학 7, 문학 2
下	7(8)	어문규정 1, 관용어 1, 비문학 5

문 1.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 것.
-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바다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 ③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 ④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 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 1. [정답] ③

[쓰기-조건에 맞는 글쓰기] 난도 下

조건에 맞는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가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해양 오염'을 말하고 있음)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설의적 표현)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버려진 쓰레기를 피서객들의 버려진 양심으로 바꿔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 것.)"

<오답 피하기>

- ①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있지만, 설의적 표현이나 생활 속 실천 방법이 표현되지 않았다.
- ②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제시되었지만, 비유적 표현이나 설의적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설의적 표현이 있다.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라는 비유적 표현도 있다. 하지만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 2.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 팀장: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 대리: 전 반대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임 대리: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 ①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 ③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 ④ 임 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정답] ①

[말하기] 난도 下

말하기 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이다.

백 팀장은 워크숍 강연을 사내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사내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한다. 팀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의 타 부서 사람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장면이므로 ①의 표현은 부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라고 분명한 표현, 즉 명시적 표현을 써서 밝히면서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③ 임 대리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여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④ 임 대리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하여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다) - (나) - (가)

4. [정답] ②

[문단의 순서] 난도 下

전후 문맥을 통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을 앞에서 말하고, 이어서 (가)는 기업들이 고객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 많은 투자와 마케팅 조사가 있었음을 밝혔다. (다)로 이어져,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써서 앞의 내용과 다름을 밝히면서 앞서 말한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없거나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이를 (나)의 문단에서 받아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문 3. 관용 표현 ㉠ ~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 홍역을 치렀다.
-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리학자이다.

- ① ㉠: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 ② ㉡: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한
- ③ ㉢: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④ ㉣: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3. [정답] ③

[관용어] 난도 下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쉽게 답할 문제였다.

\* 입추(立錫)의 여지(餘地)가 없다: 송곳의 끝을 세울 만한 빈 데도 없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꽂 들어찼다는 말.

문 4. 다음 글에서 (가) ~ (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가) 기업들은 고객이 관측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진(霧津)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로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얇은 데다가 그런 얇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기지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

- ① 수심이 얇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 ②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 ③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 ④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5. [정답] ④

[현대소설] 난도 中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은 별로 없다고 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라는 것은 서술자가 생각하는 무진의 명산물일 따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수심(水深)이 얇은 데다가 그런 얇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며, 앞의 대화에서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②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라는 표현과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표현이 있어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임을 드러냈다.





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협을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 ②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13. [정답] ②**  
 [추론] 난도 中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예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협을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②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보다 불안감이 크다.

문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학 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周轉圓)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 ① 과학 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 ③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④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14. [정답] ②**  
 [일치] 난도 中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진술을 통해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학 혁명 이전 시기에는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진술을 통해 천동설과 지동설이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됨을 파악할 수 있다.  
 ④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라는 진술을 통해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이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문15.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저기 보이는 게 암염소인가, 수염소인가?
- ② 오늘 윗층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대요.
- ③ 봄에는 여기저기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나.
- ④ 그는 수업을 마치면 으레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

**15. [정답] ④**  
 [표준어] 난도 下  
 ‘으레’는 표준어에 속하고, ‘으레히, 으레껏, 으레와’ 같은 경우는 비표준어에 속한다.  
 \*으레: 1. 두 말할 것 없이 당연히, 2. 틀림없이 언제나  
 <오답 피하기>  
 ① ‘수염소’가 표준어이다. 수컷을 뜻하는데 접두사 ‘수’으로 적는 것은 ‘수양, 수염소, 수컷’이 있다.  
 ② ‘위층’이 표준어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는 경우는 ‘ㅅ’ 받침을 적지 아니한다. ‘위쪽, 위치마, 위층’과 같이 쓴다.  
 ③ ‘ㅣ’ 모음 역행동화에 속하는 ‘아지랑이’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처리한다.

문16. ㉠ ~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난독(難讀)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精讀’이다. ‘精讀’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正讀’과 ㉠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 정독(精讀)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速讀)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 정속독(正速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으며 시간이 여유롭다. ㉣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을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수정한다.
- ② ㉡을 ‘정독(正讀)’으로 수정한다.
- ③ ㉢을 ‘정속독(精速讀)’으로 수정한다.
- ④ ㉣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16. [정답] ③

[퇴고] 난도 下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를 뜻하므로 ‘精速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문 1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바지 띄약별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멍청히 빨리 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 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정답] ④

[현대시] 난도 上

표현기법을 묻는 부분이 있어 고민을 했을 수 있는 문제이다.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은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 멍청히 빨리 들게 하구나.’라고 하였다. 아무 기척도 없는, 정적의 소리를 ‘쟁쟁쟁’ 그리고 ‘그들의 소리’라고 하였다. 소리가 없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역설법이 쓰인 것이다. ‘반어법’은 아니다.

\* 역설법(逆說法):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내적으로는 진실을 담아내는 표현.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 매미 울음과 사랑의 공통적 속성에 주목하여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 시다. 사랑도 매미 울음과 같이 한때는 열정적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은 구름처럼 차분하고 원숙한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 \* 주제 : 사랑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깨달음
- \* 표현 :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모순형용의 역설법이 쓰임.  
 ‘그들의 소리’: 매미 울음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상황에서 듣는 내면의 소리로 시각의 청각화가 쓰임.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원숙한 사랑, 은은한 사랑의 상징인 맑은 구름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다시 차분해진 마음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다.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셋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 ①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 ②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 ③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 ④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18. [정답] ④

[일치] 난도 中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고 했고,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고 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한 ④의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가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계몽된 세계’라는 표현을 ‘계몽사상’으로 잘못 읽어내고 있다.
- ② ‘비극적 세계’는 신탁이 존재하는 둘째 시대이고,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셋째 시대이다.
- ③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라는 진술을 통해 다른 기준이라는 진술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몽유록(夢遊錄)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꾸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 ~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 ②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④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일치] 난도 下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다.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②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문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 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 ②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 ③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 ④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 [정답] ③

[추론] 난도 中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진술을 통해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라는 ③의 진술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